

■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 방청기

“배심원을 설득하라” 檢·辯 설전

평의 결과·판결 거리감 줄이기 관건

배심원 선임전·온정주의가 '결림돌'

“택시 주행 기록지(타코메타)를 조작할 수 있는데 피의자가 전산 화과 출신이어서 유죄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은 무죄 주장의 원칙에 의해 무죄다”

12일 오후 5시 광주지방법원 2층 평의실에서 열린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 재판에 참석한 9명의 배심원은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의 유·무죄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배심원의 결정은 6:3으로 무죄, 재판부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판사 이주원)는 “피고인 측의 증언으로 볼 때 타코메타를 조작했다는 가능성은 작아 정황상 피고의 범행은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은 택시기사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승객 B씨(여·23)의 가방을 훔치고 성폭행하려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을 가상해 진행됐다. 정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시한 증거였다.

검찰은 피고의 택시 번호와 인상 차이를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의 진술과 메모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A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10일 뒤 신고하고,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엇갈린 점을 들어 “메모지를 조작한 뒤 허위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변호인은 또 택시 주행기록지(타코메타)를 제시하며 “사건 당일 A

씨가 몰던 택시는 2분 이상 정차한 적이 없고, 타코메타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타코메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보안도 허술하다”며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배심원단을 설득하려고 시선과 어휘 등에도 신경을 기했다. 증인·피고인 신문과 정에서 수차례 ‘이의제기’ 하며 상대방의 맥을 끊는 등 신경전도 치열했다.

배심원들은 광주와 인근 시·군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 =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라는 목적으로 기존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3원 외에 배심원단을 재판에 도입하는 제도. 살인·강도치사·뇌물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피고인이 원할 경우 5~9명의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50여 명 중 광주지법이 30명을 1차로 선정된 뒤 출석한 28명 가운데 10명(예비배심원 1명 포함)을 추천으로 뽑았다. 이어 재판장·검사·변호

인 배심원 적격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 4명을 배제한 뒤 나머지 후보자 가운데 4명을 다시 선정했다.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될 것을 감안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배심원을 선정하려는 듯 평소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한 소신을 꼼꼼히 묻기도 했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최종학(55·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배심원 가운데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배심원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온정주의 및 선입견도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으며, 시민 무관심도 풀어야 할 과제다. /최권일·김필성기자 cki@kwangju.co.kr



12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열린 ‘국민 참여 형사 모의재판’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온정주의와 편향적 시각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과제로 대두됐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전기 난방기구 조심!”

추위 시작... 광주·전남 화재 25건

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 난방기구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0월 말 현재 전기장판·난로·담요·등받이 등으로 인한 화재는 25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에 비해 28%(7건) 증가한 것이다.

화재 원인은 ▲온도조절기·제어기 고장으로 인한 과열 ▲내부 발열선(coil) 손상으로 인한 합선 ▲전

원 코드 접촉 불량 ▲전기용품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장판(10종) 및 난로(5종) ▲장시간 사용에 따른 과열 등이다.

백열전구(전기 최대 소비량 100W)의 평상시 온도는 60도 내외. 하지만 두마리 화장을 감아놓았을 경우 ▲6분 경과 때 200도까지

올라 연기가 피어오르고 ▲6분10초가 흘렀을 때 202도까지 올라 불이 난다. 전기장판의 경우 전기소비가 1kW로 더욱 위험하다.

소방당국은 난방 기구를 사용할 때 ▲다른 물품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온도 조절기 등 이상 여부 점검 ▲승인받은 제품(KS 제품 등) 구입 등을 당부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아파트 관리비 통장 10개 훔쳐

6억5천만원 인출 2명 영장

비밀번호 유출 책임 공방

광주와 전남 등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만을 돌며 통장 10개를 훔쳐 수 억원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들이 훔친 관리비 통장 중 7개는 통장에 비밀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남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주민·관리사무소·금융권 간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9월26일 새벽 광주시 북구 연제동 S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관리비 통장을 훔쳐 7천200만원을 빼내 가져간(본보 10월30일자 7면) 박모(42·광주시 서구 삼촌동)씨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4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광주와 전남·전북·대전·대구 등지를

돌며 17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통장 10개를 훔쳐 모두 6억5천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은행 창구에서 현금 2천만원 이상을 인출할 경우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위조 도장을 이용,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했다. 또 현금 인출기에서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해 통장 지급정지 여부를 미리 확인했으며, 가발 등을 착용해 추적을 피해왔다.

한편 광주 S아파트 입주주민들은 “은행 직원이 통장과 출금전표의 거래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해 왔다”며 지난달 29일부터 농협 광주지역본부 비엔날레지점과 광천동·삼촌동·화정동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을 촉구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356) 김장동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mputer Center) services, including DS (Data Security) and various IT solutions.

‘만능키’ 이용 모델 돌려 역대 절도 등 숙박시설을 돌며 ‘만능키’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12일 ‘만능키’를 만든 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금품을 훔쳐온 박모(46)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월2일 충남 공주시 한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수표 7천500만원을 훔치는 등 23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유출비 등으로 탄진했다는 것.

○경찰은 도난수표가 지불된 전국 업소의 CCTV를 분석, 이들을 추적 검거했는데 박씨 등은 “수표를 쓰지 않으려 했으나 여러 차례 사용해도 걸리지 않아 안심했다”고 진술. /광명=김종호기자 chkim@

‘빨리 댄서 1호 교수’

안유진씨 학력위조



재 모 대학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로.

안 협회장은 국내에 처음 빨리댄스를 들여와 보급하면서 광주 모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고 각종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연형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2일 대학 교수로 임용된 뒤 외국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대한민국 1호 빨리 댄서 교수’인 안유진(39·사진) 대한빨리댄스 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협회장은 2006년 2월 모 여대 무용공연학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입·소지

광주 원어민 女강사 실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12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입·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강사 N씨(여·23)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마약류 20.65g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원어민 교사 신분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8~10배 약리작용이 강한 마약을 밀수입했으며, 마약

관련 법률을 무시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날로 늘고 있는 풍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광주 모 영어학원 강사인 N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인도의 한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수지’(일명 헤시시)를 주문한 뒤, 지난 9월 팜공 버터 안에 숨겨 밀수입했다가 적발됐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Hwangjun Younggi' (황준영기) real estate services. It features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prices and details.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ogo.